

#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위해 공공기관 나섰다

### 전남개발공사, 도내 출연기관들과 함께 첫 공동 구매상담회 20여 곳 참여...전기기계 관급자재·서비스·용역까지 확대

전남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개척 및 공공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기업 공공구매 상담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최근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소재 중소기업 일자리경제 진흥원 컨벤션홀에서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남문화재단, 전남관광재단,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도청산하 유관기관들과 함께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기업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영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한다.

이날 공공구매 상담회에서는 통신장비, 전기자재, 인쇄물, CCTV, 실내인터리어, 장애인

편의시설 등과 관련한 도내 20여개 사회적 경제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와 일대일 대면상담이 이뤄졌다.

'전남개발공사는 이 같은 상담회 등을 통해 지난해 총 10억원의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가운데 63%인 6억 3천만원을 구매했다.

올해도 10월말 까지 4억원을 구매했고 연말까지 4억원 이상을 구매할 계획으로 있는 등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성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행사부터는 전라남도 산하 출연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함께 참여도록 유도했고 업체들의 참여 폭도 종전 소모품위주에서 벗어나 전기기계 관급자재, 각종 서비스, 용역업체들까지 대폭 확대됐다.

또한, 공공구매 상담회가 실제 구매로 이어



지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을 매칭, 효율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참가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공구매담당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돼 수요에 맞는 물품·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공공시장 판로 개척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내년에는 행사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 농축협에 '행복전남' 만들기 참여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남악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전남 농축협조합장 포럼에서 2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세계로 뚫어주는 행복전남 정책 및 농정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민선8기 5개월간의 성과를 설명하며 "더 큰 미래, 위대한 전남의 힘찬 발걸음을 지지해준 조합장과 도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전남도의 비전인 '세계로 뚫어주는 대도약, 행복전남시대'를 실현해 전남이 역사적 대전환시대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정 핵심 키워드인 고품질·스마트·수출농업을 통해 전남 농업이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농가소득, 미래농업, 고부가가치 등 2023년 농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건설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성장하도록 세계일류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정을 펼쳐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영록 지사는 "앞으로도 농민 삶의 현장에서 농업·농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서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시군 농축협조합에서는 도내 청소년이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할기 지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남도에 인재육성장학금을 전달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대학졸업 5년 만에 단감으로 전국 최고된 영암 청년농부

### '영암단감' 김영재씨,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 대상



전남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2년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영암 김영재 농가의 단감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전남도 제공)

대학 졸업 후 5년 간 줄곧 단감 농사에만 매달려온 전남 영암의 청년농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단감' 농사꾼으로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2년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영암 김영재(26) 농업인이 출품한 단감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청년농부 김영재씨는 영암 신북면에서 3

ha 규모로 단감을 재배하고 있다.

2018년 3월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에서 배운 재배기술과 자신만의 노하우로 단감 농사를 시작한지 약 5년여 만에 큰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구례 배 김현준 농가와 고흥 참다래 김덕근 농가는 특별상을 수상해 전남이 전국 최고의 명품과일 생산지임을 입증했다.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는 국산 과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수입과일 대비 국내산 과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전국 각 시·도에서 추천한 사과, 배, 단감 등 일반과수 7종과 밤, 뽕은 감 등 산립과수 4종을 대상으로 외관·계측, 과수원 등을 종합평가해 대상 1점과 과종별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 모두 46점을 선발했다.

대상은 국무총리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500만원의 상금이, 최우수상은 장관표창과 200만원, 우수상·특별상 등은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특별상을 받은 구례 김현준 농가와 고흥 김덕근 농가는 지역의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산 신품종 재배에 도전한 선도 농업인이다. 김현준 농가는 구례의 청정환경에서 키워낸 신품종 '조이스킨' 배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김덕근 농가는 20년 이상 축적된 재배기술을 바탕으로 신품종 '홍양' 참다래 재배에 성공했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전남지역에 가뭄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 전국 대회에서 큰 상을 수상한 농업인에게 축하를 드린다"며 "도에선 지역 명품 과일이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광주·전남 체육회장 선거 '건강범죄·정치 도전 여부' 키워드

광주와 전남체육회를 이끌어 갈 수장을 뽑는 선거가 후보등록으로 본격화 된 가운데 이번 선거는 전임 회장들의 중도 사퇴의 이유였던 '건강·범죄·정치 선거 도전 여부'가 후보자를 선별하는 첫번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체육회는 체육인이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가 4일부터 5일까지 이틀동안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6일부터 14일 선거운동, 15일 선거인단 투표까지 전개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체육회 선거운영위는 430명으로 선거인단을 1차 구성했으며 중북·각 체육회장 출마자 현직 사퇴 여부 등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일 최종 결정한다. 전남은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361명으로 확정했다.

또 이번 선거는 매수·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한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앞서 광주는 4명, 전남은 3명의 예비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고 물밑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을 앞세운 출마 표명"을 비롯해 "전임 체육회장들 세력 잡기 '체육인 쫓겨가기'" 등 민선 1기 선거때와 다름없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선거 후 법정공방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와 전남체육회는 각각 김창준·김재무 회장이 지난 2020년 1월 초대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각각 '건강'과 '6·1지방선거 도전' 등의 이유로 내년 1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광주는 보궐선거를 통해 이상동 전 회장을 선출했지만 선거인단 구성 오류로 낙선자들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법원의 '직무 정지 판결'로 인해 직무대행 체제가 한동안 이어졌다.

이들러 이상동 전 회장은 선거 출마 전부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당선 이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아 임기 5개월여를 앞두고 직을 상실했다.

김재환기자

## 광주 초·중·고·특수 학교 1만3263교실 무선망 구축

광주지역 미래교육의 기반이 되는 무선망(WiFi)이 초·중·고·특수학교 교수학습공간과 교무실 등에 구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역의 모든 학교 1만3263개 교실에 최신 규격(WiFi-6)의 기가급 학교 무선망 구축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특수학교의 교수학습공간과 교무실 등에서는 간편하게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 디지털 교과서 활용,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원격수업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반교실·특별교실 등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주요 학습 공간과 교무실·수업준비실 등 교원지원공간 등에 무선망이 설치돼 다양한 장소에서 인터넷 수업이 가능해졌다.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2. 12. 5. 389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최태양 (930516-1566811)  
최 후 주 소 : 목포시 해안로249번길 39-1(무안동)

위 망 최태양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년 12월 5일

공 고 인 : 최성호  
주 소 : 목포시 해안로249번길 39-1(무안동)  
한정승인수리일 : 2022년 11월 28일  
공 고 기 간 : 2022. 12. 5 ~ 2023. 2. 5

**여수 천연가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여수 천연가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여수 천연가스 발전사업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일원(묘도 준설토매립장 항만개발 사업구역 내)  
다. 사업규모 : 발전용량 550MW X 1기(대기온도 32℃ 기준)  
라. 사업시행자 : 한국서부발전(주)  
마. 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개최일시 :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10:00  
나. 개최장소 :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3층 다목적실(광양시 광장로 14)

3. 기타 사항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술내용의 중복을 방지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2022년 12월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서 추천서를 여수시청(산단환경관리사업소) 또는 광양시청(환경과)로 제출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진술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사업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산단환경관리사업소 ☎ 061-659-2812, 광양시청 환경과 ☎ 061-797-2785, 한국서부발전(주) ☎ 041-400-1665, (주)도화엔지니어링 ☎ 02-6323-43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한국연립주택재단  
Korea Metropolitan Housing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많은 근무 시간에는 야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급 상황에 기업과 근무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활을 응원합니다.